

주간 통일정세

2016-50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12.10	“北 유엔주재 차석대사 박성일 부임”(연합뉴스)
	12.11	北김정은, ‘남조선 타격방법 확인’ 목적 전투훈련 참관(연합뉴스)
	12.12	北 노동신문 “우리 군대, 최후공격 신호탄 기다려” 위협(연합뉴스)
	12.13	北 김정은, 원산군민발전소 시찰…또 ‘자력갱생’ 강조(연합뉴스)
		日신문 “만취한 김정은, 軍 원로 모아 반성문 쓰게 해”(연합뉴스)
		“北통전부 부부장에 김세완 해외동포원호위 부위원장 임명”(연합뉴스)
	北, 김정일 추모 분위기 띄우기…김정은 현지지도도 활용(연합뉴스)	
	12.14	北 주제네바대사 “유엔 이산가족·납북 보고서 항의할 것”(연합뉴스)
	12.15	김정은, 軍수산사업소 또 시찰…“피로가 가신다”(연합뉴스)
		“꽤거리 만들지 말라는 김정은 경고에 北 간부들 긴장”(연합뉴스) “北청천강 인근서 김정은 시찰용 추정 활주로 포착”(연합뉴스)
12.16	北, 노동당 초급당위원장대회 월말 평양서 개최(연합뉴스)	
	“北, 수해복구용 중지원물자 군용도로 보수에 전용”(연합뉴스)	
	북한, 김정일 사망 5주기 하루 앞두고 추모 분위기 띄우기(연합뉴스) 北 김일성종합대, 美 킬럼비아대에 자매 교류 타진(연합뉴스)	
경제	12.11	中, 대북제재 본격화…북한산 석탄 수입 일시 중지(연합뉴스)
	12.14	‘제재 대상’ 北 대성은행, 직불카드 ‘금길’ 출시(연합뉴스)
	12.15	“석탄적재 北선박, 대북제재로 중입항 못해 공해상 맴돌아”(연합뉴스) 中 연변에 北근로자 수천명 근무…“대북 제재에도 큰 변화없어”(연합뉴스)
사회 문화	12.12	美매체 “北, 압록강대교 북한구간 진입램프 철거”(연합뉴스) “북한 장마당서 한국 의약품 인기”(연합뉴스)
	12.14	“北 양강도서 김정은 타도 주장하는 전단 발견”(연합뉴스)
		김정일 5주기 앞두고 북중접경 평양행 러시…꽃집 주문 폭주(연합뉴스)
12.15	“北잠수함 지난 4월 원인불명 사고로 두동강…12명 사망”(연합뉴스)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 사회 양극화 심화”(연합뉴스)	
외교 국방	12.10	EU, 안보리 결의따라 대북제재대상 개인 11명·기관 10곳 추가(연합뉴스)
	12.11	“北, 중공군 묘지 새 단장…북중관계 개선 징표”(연합뉴스)
	12.12	北, 트럼프 행정부 겨냥해 “문제는 적대시 정책 철회 여부”(연합뉴스)

	北, 조선신보에 "잔류일본인 함흥에 생존" 공개...日 떠보기?(연합뉴스) "독일, 북한 고려항공 불법행위 유무 주시"(연합뉴스)
12.13	미국무부 "다른 나라들 안보리 대북제재 준수 여부 면밀히 주시"(연합뉴스) 北 '동맹불변' 강조 美에 "종관계 유지 속셈" 억지(연합뉴스) EU "북한 5차 핵실험 관련, 추가 대북제재 고려" 공식 발표(연합뉴스) "우간다, 북한 공군교관 초빙 프로그램 중단"(연합뉴스)
12.14	北, 유엔 기자회견서 "핵문제, 美적대시정책 산물" 주장(연합뉴스) 중국, 북-중 접경 검문 강화...北승객 응답 압수(연합뉴스)
12.15	러 외무부 "대북 제재 만병통치약 아냐...대화 재개 서둘러야"(연합뉴스) "北, 미얀마에 농업지원 제안...고립탈피 의도"(연합뉴스) 나토 첫 북핵특별회의...북한에 핵·미사일 포기, 도발중단 촉구(연합뉴스) NHK "北 이달 SLBM 육상 발사 시험...美에 포착돼"(연합뉴스)
12.16	北, 우방국 겨안기 나섰나...이집트 유력인사 등 20명 평양 초청(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12. 11.

■ 北 김정은, '남조선 타격방법 확인' 목적 전투훈련 참관(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를 찾아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을 참관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정은의 참관 소식을 전하면서 “훈련은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실전능력을 판정하고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특정대상물들에 대한 타격방법의 현실성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전함.
- 현장에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리명수 군 총참모장, 리영길 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박정천 군 포병국장, 김영복 군 제11군단장 등이 김정은을 맞이함.

2016. 12. 13.

■ 北 김정은, 원산군민발전소 시찰...또 '자력갱생' 강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자력갱생의 창조물'로 내세우는 원산군민발전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인공호수를 바라보며 “멋있소, 대단하오, 하자고 결심한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오, 대자연을 마음대로 길들이는 우리 인민의 창조적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오”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힘.
- 김정은은 이어 댐에 새겨진 자력갱생이라는 대형 글발을 가리키며 “정말 힘이 난다”면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 강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을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강조함.

■ 日신문 “만취한 김정은, 軍 원로 모아 반성문 쓰게 해”(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9월 말 만취한 채 군 원로들을 별장으로 불러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도쿄신문이 13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익명의 북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모아 쓴 ‘북조선은 지금-김정은

체제 5년' 제하 기획 기사에서 이같이 전함.

-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전국 30곳 이상에 있는 별장 중 한 곳에서 갑자기 군 원로들을 불러 모아 “너희가 군사위성 하나 만들 수 없었던 것은 반역죄와 같은 잘못이다”고 고함을 지른 뒤 밤을 새워 반성문을 쓰라고 명령함.

2016. 12. 15.

■ **김정은, 軍수산사업소 또 시찰…“피로가 가신다”(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달에도 '물고기잡이 대풍'을 이뤘다고 주장하는 군 수산사업소 시찰 행보를 이어감.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전례 없는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를 현지도 하시였다”고 15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가 짧은 기간 멋들어지게 꾸려졌을 뿐 아니라 희한한 물고기대풍을 안아왔다”면서 지난 14일까지 인민군 전체 연간 물고기잡이 성과가 애초 계획의 170%로 초과 달성됐다고 설명함.

■ **“패거리 만들지 말라”는 김정은 경고에 北 간부들 긴장”(연합뉴스)**

- ‘패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경고에 당과 군 간부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지난 9일 김정은 지시문이 하달됐다”면서 “지방의 당과 사법간부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패거리 문화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힘.
- 이 소식통은 김정은은 지시문에서 끼리끼리 뭉쳐 수군덕거리는 자들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거부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만연한 부정부패의 원인도 패거리 문화 탓으로 돌렸다고 전함.

■ **“北청천강 인근서 김정은 시찰용 추정 활주로 포착”(연합뉴스)**

- 북한이 건설 중인 청천강 관개수로 인근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시찰용으로 추정되는 활주로는 포착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RFA에 출연, 지난 8월 21일 촬영된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함.
- 멜빈 연구원은 북한이 청천강에 신축한 수력발전소로부터 수로를 건설하고 있

다며 “활주로와 격납고 등이 관개수로 공사와 함께 만들어졌는데, 활주로는 김정은이 수로 공사 상황을 시찰하기 위한 시설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설명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12. 10.

■ “北 유엔주재 차석대사 박성일 부임”(연합뉴스)

- 미국과 북한간 연락창구인 ‘뉴욕채널’ 역할을 담당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 대사에 박성일 전 북한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이 부임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함.
- VOA는 이날 “박성일 (신임) 차석대사가 이달부터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면서 “2013년 7월부터 근무했던 장일훈 전 차석대사는 현재 뉴욕에서 박 차석대사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있고, 조만간 평양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힘.
- 박 차석대사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2011년 6월까지 뉴욕 북한대표부에서 박길연 전 대사와 신선호 전 대사 아래 참사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음.

2016. 12. 13.

■ “北통전부 부부장에 김세완 해외동포원호위 부위원장 임명”(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의 대남 부서인 통일전선부(통전부) 부부장에 김세완 해외동포원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짐.
-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통해 북한 통일전선부 부부장에 김세완 해외동포원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함.
- 북한 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1960년대 김일성 주석의 해외동포관리정책에 의해 설립됨.

2016. 12. 14.

■ 北 주제네바대사 “유엔 이산가족·납북 보고서 항의할 것”(연합뉴스)

-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과 납북 문제를 다룬 유엔 보고서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함.

- 서세평 스위스 제네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이 문제를 정식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7일 보고서에서 2000년 본격화한 남북 이산가족 재회를 신청한 약 13만명 중 절반 이상 이를 이루지 못하고 숨졌다고 지적함.

다. 공식행사

2016. 12. 16.

■ 北, 노동당 초급당위원장대회 월말 평양서 개최(연합뉴스)

- 전당(전국 노동당) 초급 당위원장 대회가 이달 말 평양에서 열린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16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초급 당조직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특별히 중시하고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를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밝힘.
-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는 노동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발전시키고,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추동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임.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12. 16.

■ “北, 수해복구용 中지원물자 군용도로 보수에 전용”(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지원한 수해복구용 물자 상당량을 군용도로 보수에 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북한 당국이) 군용도로를 수해복구 대상에 포함해 중국으로부터 지원된 수해복구(용) 자재의 상당량을 군용도로 복구에 빼돌리고 있다”고 전함.
- 문제의 군용도로는 북한이 여러 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양강도 백암군의 선군청년발전소까지 연결된 도로로 알려짐.

■ 북한, 김정일 사망 5주기 하루 앞두고 추모 분위기 띄우기(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사망 5주기를 하루 앞둔 16일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김정일 찬양 글을 올리는 등 추모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킴.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6면에서 “눈발 속에 피눈물을 뿌리며 아버지 장군님(김정일)과 영결한지도 어느덧 다섯 해가 되었다”며 “조국통일을 위한 그의 불멸의 영도시는 숭고한 인덕정치, 광폭정치로 수놓아져 있다”고 치켜세움.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일의 사망 5주기를 맞아 지난 13일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항일혁명 투쟁연고자 가족들의 회고모임’이 진행됐다고 밝힘.

■北 김일성종합대, 美 컬럼비아대에 자매 교류 타진(연합뉴스)

- 북한 내 최고 대학으로 평가되는 김일성종합대학이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모교인 컬럼비아대에 자매 교류를 타진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6일 전함.
- 아사히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에 최근 세계 일류 대학으로의 진입을 엄명했다”며 “이 대학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를 초대하고 싶다는 생각도 전했다고 한다”고 보도함.
- 신문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컬럼비아대의 인류유전학 전공 교수가 지난 10월 학술단체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 김일성종합대 관계자와 면담했다”면서 이같이 전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12. 12.

■北 노동신문 “우리 군대, 최후공격 신호탄 기다려” 위협(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우리 군대와 위력한 타격수단들은 최후공격의 신호탄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남위협의 목소리를 높임.
- 신문은 이날 ‘백두산총대는 최후공격명령을 기다린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 외교와 얼마전 진행된 한미 공군의 ‘비질런트 에이스’ 연합훈련 등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이같이 말함.
- 신문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권리인 핵억제력 강화 조치를 걸고 감행하는 (한국과 미국 등의) 포악무도한 정치, 경제적 제재와 봉쇄, 군사적 압박소동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함.

2016. 12. 13.

■北, 김정일 추모 분위기 띄우기…김정은 현지지도도 활용(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5주기(17일)를 앞두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현지 지도를 '김정일의 발자취'와 잇따라 연관시키며 추모 분위기 고조에 나섬.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이 강원도 원산의 원산군 민발전소를 방문했다고 13일 보도함.
- 원산군민발전소는 김정일이 지난 2010년 7월 건설 현장을 시찰한 곳으로, 올해 4월29일 준공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2016. 12. 14.

■ ‘제재 대상’ 北 대성은행, 직불카드 ‘금길’ 출시(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제재대상에 올라있는 북한 대성은행이 외화결제용 직불카드 ‘금길’을 출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 NK뉴스가 14일 보도함.
- 이 매체는 올해 초 평양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전함.
- 직불카드에는 “금길전자결제카드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대금을 지불할 때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전자결제수단”이라고 쓰여 있다고 매체는 설명함.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12. 11.

■ 中, 대북제재 본격화..북한산 석탄 수입 일시 중지(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지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본격적인 이행에 돌입함.

- 중국 상무부는 10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해 1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힘.
-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20여 일 간 중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2016. 12. 15.

■ **“석탄적재 北선박, 대북제재로 中입항 못해 공해상 댄돌아”(연합뉴스)**

- 석탄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 12척이 중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한 채 공해상을 댄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5일 보도함.
-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우리 스타호와 민해호 등 북한 선박 4척이 각각 지난 11~14일부터 중국 산둥성 란산항에서 약 20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머물고 있음.
- 이는 중국 정부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VOA는 덧붙임.

■ **中 연변에 北근로자 수천명 근무…“대북 제재에도 큰 변화없어”(연합뉴스)**

-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두 차례 발효됐지만 북한과 인접한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북한 근로자들이 여전히 대거 상주하면서 현지 공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 15일 북-중 접경 소식통들에 따르면 연변자치주 내 훈춘시 국가급 변경(邊境)경제합작구에 입주한 300여 개의 중국업체 중 상당수에 북한 근로자 수천명이 근무하고 있음.
- 접경지역 한 소식통은 “연변의 북한 노동자는 월 평균 임금 2천위안(약 34만원) 이하로 중국인 근로자 2천500~3천위안(약 42만5천~51만원)보다 싸고 근면해 중국 업체들이 선호함”며 “북한도 외화벌이 근로자 파견을 위해 양측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졌다”고 말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12. 12.

■ **美매체 “北, 압록강대교 북한구간 진입램프 철거”(연합뉴스)**

- 북·중 경협을 상징으로 건설 중이던 신(新) 압록강대교의 북한 측 구간에 설치됐던 진입램프가 최근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가 12일 보도함.
- 매체는 2015년 말과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을 비교·분석한 결과 “북한이 단둥과 신의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압록강대교 프로젝트 관련 시설들을 조금씩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교 남단의 북한 신의주쪽에 설치됐던 교량의 진입램프가 철거된 사진을 공개함.
- 공개 사진에 따르면 신 압록강대교와 함께 건설됐던 대교 남단 진입램프의 교각 백여 개와 상판 등이 모두 뜯겨 나감.

나. 시장관련

2016. 12. 12.

■ **“북한 장마당서 한국 의약품 인기”(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한국 상품의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나 장마당에서는 여전히 한국산 의약품이 인기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겨울철 추위가 닥치면서 장마당에서 소화제와 감기약, 지사제, 비타민을 비롯한 각종 의약품의 판매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면서 “그중에서도 중국산 의약품을 제치고 한국 의약품이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한국산 의약품이 중국산이나 러시아산보다 부작용이 없어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져 한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고 소개함.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6. 12. 14.

■ **“北 양강도서 김정은 타도 주장하는 전단 발견”(연합뉴스)**

- 북한 양강도 보천군과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최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과 낙서가 각각 발견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보천군의 시장골목에서 지난 20일 ‘김정은 타도 하자’라는 글이 적힌 전단이 살포됐다”면서 “이 사건으로 중앙당 검열조가 급파돼 엄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중앙에서 파견된 검열조는 현재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필적 감정을 벌이고 있으나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함.

■ **김정일 5주기 앞두고 북중접경 평양행 러시…꽃집 주문 폭주(연합뉴스)**

- 오는 17일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5주기를 앞두고 북·중 접경 일대에서 평양행 러시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남.
- 14일 접경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 사망 5주기를 맞아 북한이 대대적인 추모 분위기 조성에 나서면서 북한과 가까운 중국 동북 3성에 있는 북한사람과 조선족 등이 잇달아 평양으로 향하고 있음.
- 한 소식통은 “올해가 김 위원장이 사망하고 처음 맞는 이른바 5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정주년·整週年)라는 점에서 북한이 대내외에 5주기를 크게 선전하고 있다”며 “북한과 접경한 랴오닝(遼寧)성 등지의 북한 관련 인사들이 대거 방북할 것”이라고 말함.

2016. 12. 15.

■ **“北잠수함 지난 4월 원인불명 사고로 두동강…12명 사망”(연합뉴스)**

- 지난 4월 북한 잠수함이 북한 해역에서 운항 중에 두동강 나는 원인불명 사고가 발생해 승조원 12명 모두가 숨졌다고 도쿄신문이 북한 관계자 및 주변국 정보당국을 인용해 15일 보도함.
- 신문은 유족에게는 수주 후에 마을 인민반 책임자를 통해 사고가 통보됐으며 희생자들에게는 영웅 칭호가 부여됐고 유족에게는 새집이 제공됐다고 전함.
- 또 희생자 가운데 가장 젊은 사람은 19세 청년이었고, 아들의 부고를 전해들은 모친이 통곡하는 모습이 주변 주민들에 의해 목격됐다고 이 신문은 소개함.

■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 사회 양극화 심화”(연합뉴스)**

-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지난 5년간 북한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북한경제연구자 대토론회에서 '북한경제의 변화와 북한연구'에 대해 주제 발표함.
- 정 연구위원은 “북한은 2011년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 1% 정도에 머무르다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됐다”면서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12. 12.

■ 北, 트럼프 행정부 겨냥해 “문제는 적대시 정책 철회 여부”(연합뉴스)

- 북한이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문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여부”라고 강조함.
-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의 김인철 실장이라는 인물은 12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조선은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개의치 않는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지난 시기 조선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핵위협만이 존재하였다”며 “그런데 이제는 (북한의 '수소탄' 보유로)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강변함.

2016. 12. 13.

■ 美국무부 “다른 나라들 안보리 대북제재 준수 여부 면밀히 주시”(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지하기로 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함.
- 엘리시아 에드워즈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관련 질문에 “중국 상무부의 발표를 봐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 에드워즈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11월 30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

재 결의 2321호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모두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北, '동맹불변' 강조 美에 “중관계 유지 속셈” 억지(연합뉴스)**

-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변함없는 동맹관계'를 강조한 미국에 대해 “주중관계의 유지 강화를 꾀한다”며 비난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또다시 드러난 미국의 양면적 정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태도는 “숨넘어가는 주구(한국)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같은 저들의 이익 추구만을 꾀하는 흉악한 강도적 본성”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 논평은 미국이 탄핵안 가결 후 한국 각계의 투쟁에 공감하는 듯하면서도 대북 공조 등 정책의 일관성·연속성을 역설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남조선에서 친미 보수정권을 연장해 보려는 음흉한 계략의 산물”이라고 주장함.

2016. 12. 14.

■ **北, 유엔 기자회견서 “핵문제, 美적대시정책 산물” 주장(연합뉴스)**

- 미국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13일(현지시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핵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주장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함.
- 유엔 북한대표부 김인룡 차석대사 등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9월 총회에서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 결의를 채택한 것이 한반도 핵 문제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주장함.
- 북한 측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입장 역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영향을 받은 편파적이고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함.

나. 북·중 관계

2016. 12. 11.

■ **“北, 중공군 묘지 새 단장…북중관계 개선 징표”(연합뉴스)**

- 북한이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을 새로 단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RFA에 출연, 지난 10월 9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힘.
- 멜빈 연구원은 “바닥공사도 새로 하고 주차장, 화장실 건물 등도 새로 지었는데, 중국인 관광객도 쉽게 찾아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함.

2016. 12. 14.

■ **중국, 북·중 접경 검문 강화…北승객 응담 압수(연합뉴스)**

- 중국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북한 사람들의 물품에 대한 검문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짐.
- 이는 신규 유엔 결의에 대한 중국의 이행 의지를 보여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독자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할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임.
- 14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 단둥 세관 검사소는 최근 북한-단둥 철도 검문에 나서 북한 여객의 짐에서 흑곰 응담 40개를 발견해 압수함.

다. 북·일 관계

2016. 12. 12.

■ **北, 조선신보에 “잔류일본인 합충에 생존” 공개…日 떠보기?(연합뉴스)**

- 일본 패망후 북한에 남은 ‘잔류 일본인’ 중 생존자가 있다고 북한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밝힘.
- 조선신보는 12일 일본인 유골 발굴·확인 사업에 관여해 왔다는 ‘일본연구소 상급 연구원 조희승 박사’를 인용해 “잔류 일본인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생존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함.
- 조 박사는 잔류 일본인이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생존이 확인된 사람은 “시거나 조건이 되면 본인의 의향에 따라 공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함.

라. 북·러 관계

2016. 12. 15.

■ **러 외무부 “대북 제재 만병통치약 아냐…대화 재개 서둘러야”(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당사국 간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함.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군비통제국 국장 미하일 울리아노프는 15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북핵 문제와 관련) 외교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관심이 새로운 제재 도입에만 모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함.
-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응징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하면서도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재개 등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해 옴.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12. 10.

■ **EU, 안보리 결의따라 대북제재대상 개인 11명·기관 10곳 추가(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은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를 이행하기 위한 법령을 공포함.
- EU 집행위는 이날 관보를 통해 ‘집행위 이행규정 2016/2215호’를 발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 박춘일 주(駐)이집트 대사를 비롯한 개인 11명, 신광경제무역총회사를 포함한 기관 10곳을 EU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반영함.
- 집행위는 이어 이들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즉각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2016. 12. 12.

■ **“독일, 북한 고려항공 불법행위 유무 주시”(연합뉴스)**

- 독일 정부가 북한 고려항공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미국 정부의 최근 결정에 호응해 고려항공의 불법 행위 유무를 주시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익명을 요구한 독일 외무부의 한 관리는 VOA에 “독일 정부가 북한 고려항공의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파트너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힘.
- 이 관리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고려항공과 관련한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독일 사법권 안에서 엄중히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함.

2016. 12. 13.

■ **EU “북한 5차 핵실험 관련, 추가 대북제재 고려” 공식 발표(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은 지난 9월 감행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1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혀 조만간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설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함.
- EU는 이날 브뤼셀에서 EU 외무장관이사회를 열고 북한에 대한 결정문을 채택해 이 같은 입장을 천명함.
- EU 외무장관이사회는 결정문에서 “2016년에 북한에 의해 감행된 핵실험과 다수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비난한다”면서 “그것들(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EU가 수십 년간 지속해서 지지해온 글로벌 핵 비확산과 군축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 **“우간다, 북한 공군교관 초빙 프로그램 중단”(연합뉴스)**

- 우간다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공군 전투기 조종사 교관을 초빙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현지언론을 인용해 보도함.
- 우간다의 일간지 '더 모니터'는 오켈로 오르엠 외무부 장관이 최근 남아프리카의 민간 연구단체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우간다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교관을 데리고 오던 프로그램을 일체 중단했다”고 말함.
- 오르엠 장관은 “북한과의 군사적 교류는 이제 더는 없다”며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수입도 이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임.

2016. 12. 15.

■ **“北, 미얀마에 농업지원 제안…고립탈피 의도”(연합뉴스)**

-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 위기에 처하자 전통적 우방인 미얀마에 농업 지원을 제안하는 등 관계 개선에 나섰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 코트라(KOTRA) 양곤 무역관은 지난 5일 작성한 ‘북한, 미얀마에 관계개선 제스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호범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가 지난 6월 아웅 쉐 농업관개부 장관과 만나 작황이 좋은 벼 품종 지원을 제안했다고 RFA는 전함.
- 북한은 또 미얀마의 상습 수해지역에 댐과 저수지를 건설하는 치수사업도 제안했으며, 이는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의도라고 이 매체는 밝힘.

■ **나토 첫 북핵특별회의의...북한에 핵·미사일 포기, 도발중단 촉구(연합뉴스)**

- 미국과 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15일(현지시간)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NAC)에서 북핵 특별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논의함.
- 유럽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나토가 북한 핵 문제를 놓고 특별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나토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두 차례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과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력히 비판하고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다짐할 것으로 알려짐.

2016. 12. 16.

■ **北, 우방국 꺼안기 나섰나...이집트 유력인사 등 20명 평양 초청(연합뉴스)**

- 북한이 한때 강력한 우방이었던 이집트의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최근 평양으로 대거 초청한 사실이 확인됨.
-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하면서 북한이 고립 탈피를 위해 우방국 꺼안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됨.
- 16일 이집트 외신 특파원과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관은 지난 9월~10월 이집트 정치인과 접촉해 이집트 사절단을 구성해 평양을 방문해 달라고 공식 요청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12. 15.

■ **NHK “北 이달 SLBM 육상 발사 시험...美에 포착돼”(연합뉴스)**

- 북한이 이달들어 육상 시설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을 한 것이 미국에 포착됐다고 NHK가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15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탄도탄 냉발사체계(콜드런치)라고 불리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전함.
- 콜드런치는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잠수함 내부에서 연료를 분사시키지 않고 가스 등의 압력으로 미사일을 외부로 쏘아 올린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기술임.

Ⅱ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2.12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내일 회동...대북제재 집중협의(연합뉴스)	
	12.13	한·미·일 “北 핵포기 않으면 자멸”...석탄 수출통제 철저 공조(연합뉴스)	
		브룩스 사령관 “북핵 대응 위해 美전략자산 전개 등 대책강구”(연합뉴스)	
		“北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와야”...한·미·일 6자 수석 회견 문답(연합뉴스)	
	12.14	한·미, 다음주 미국서 ‘확장억제협의체’ 첫 회의(연합뉴스)	
	12.14	외교부 “틸러슨 차기 美국무장관 지명 환영...동맹강화 기대”(연합뉴스)	
12.14	윤병세 “북한 오관 않도록 트럼프 진영과 긴밀협의”(연합뉴스)		
12.15	외교부 “확장억제협의체 출범으로 한·미동맹 굳건함 재확인”(연합뉴스)		
12.16	한·미·일 안보회의 오후 서울 개최...北 도발말라 메시지(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2.13		“롯데 조사하는 중, 선양 롯데월드 건 축허가...”사드보복’ 수위조절(종합)(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2.13		日정부,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 무산 공식발표(연합뉴스)
	12.15	한·일 “재무장관회의 등 협력 확대...新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연합뉴스)	“일본, 정보협정에도 北 SLBM 발사시험 정보 제공안해”(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2.12		허쩌린 중국...트럼프 '대만 정책' 의도 파악 총력전(연합뉴스)
	12.14		中, 美·대만 '정부·군사 접촉' 강력반대...대만에도 엄중경고(연합뉴스)
			백악관 "하나의 중국 정책 덕분에 이란 핵합의-北추가제재 가능"(연합뉴스)
	12.15		주미 中대사 "주권은 협상카드 아냐...미중관계 기반 훼손 안돼"(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12.15	美언론 "푸틴, 러시아의 美대선 해킹에 직접 관여"(연합뉴스)	
	12.16	백악관 "러시아 美해킹, 푸틴 모르게 진행되지 않았을 것"(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12.14	中·日 고위관리 통화...“대북 제재 이행 협력 확인”(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12.15	중·러 군사협력 박차...“러 첨단전투기 수호이-35 4대, 연내 中에”(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12.12	러·일 정상회담·진주만 방문...아베 연말외교 성공할까(연합뉴스)	
	12.15	아베-푸틴 오늘부터 정상회의...영토반환·경제협력 빅딜 나오나(연합뉴스)	
	12.16	공동경제활동' 쿠릴섬에 어느나라 법 적용?...일-러 '동상이몽'(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12. 12.

■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내일 회동…대북제재 집중협의(연합뉴스)

-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양자 협의를 시작으로 이틀간의 논의에 돌입함.
-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우리 측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 측의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서울에서 북핵 문제 관련 양자 협의를 진행함.
- 이어 이날 저녁에는 일본 측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3국 수석대표가 서울에서 업무 만찬을 할 예정임.

2016. 12. 13.

■ 한·미·일 “北 핵포기 않으면 자멸”…석탄 수출통제 철저 공조(연합뉴스)

- 한미일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와 3국이 후속으로 내놓은 대북 독자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빈틈없는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특히 안보리 결의 2321호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의 철저한 이행·검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함.
-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동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힘.

■ 브룩스 사령관 “북핵 대응 위해 美전략자산 전개 등 대책강구”(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만나 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함.
- 한 장관과 브룩스 사령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북한

- 이 상황을 오관해 도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전함.
- 한 장관은 “북한이 한미의 전환기적 상황을 오관해 언제든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달라”고 말함.

■ “北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와야”...한·미·일 6자 수석 회견 문답(연합뉴스)

-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병진노선(군사력 강화와 경제 발전의 병행 전략)과 핵무장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힘.
-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3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진행한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함.
- 윤 특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공약은 철통과 같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오늘과 같은 3국 협의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초석이 되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2016. 12. 14.

■ 한·미, 다음주 미국서 ‘확장억제협약체’ 첫 회의(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다음 주 미국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약체(EDSCG) 첫 회의를 개최함.
- 외교부와 국방부는 14일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약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힘.
- 고위급 EDSCG 회의는 지난 10월 미국에서 열린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와 제48차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회의체임.

■ 외교부 “틸러슨 차기 美국무장관 지명 환영...동맹강화 기대”(연합뉴스)

- 외교부는 미국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으로 렉스 틸러슨 엑손 모빌 최고경영자(CEO)가 지명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힘.
-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국제무대에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쌓은 틸러슨 CEO

가 미국 차기 행정부 국무장관에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함.

- 당국자는 이어 “특히 킬러슨 CEO가 지명 소감으로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주목한다”면서 “미국 차기 행정부 하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임.

■ 윤병세 “북한 오판 않도록 트럼프 진영과 긴밀협약”(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 '탄핵 국면'과 미국 행정부 전환기가 맞물린 시기를 틈 탄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미국 현 정부 및 차기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 윤 장관은 14일 서울 도림동 외교부 청사에서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전환기적 상황을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한미 외교안보 당국간 다양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 측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함.
- 이어 윤 장관은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금요일(9일)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정부는 주요 외교 정책을 일관되고 연속성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며, 우리 대외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각 외국 정부, 언론 등에 적극 설명해오고 있다”고 강조함.

2016. 12. 15.

■ 외교부 “확장억제협의체 출범으로 한·미동맹 굳건함 재확인”(연합뉴스)

- 외교부는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연내 발족시키기로 한 데 대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미국 새 정부 하에서도 확장억제와 관련한 한미 고위급 협의를 할 기반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행정부 교체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의체를 조기 출범시켰다”며 이같이 말함.
- 한미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EDSCG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2016. 12. 16.

■ 한·미·일 안보회의 오후 서울 개최…‘北 도발말라’ 메시지(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의 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안보회의(DTT)가 16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림.
- 한국의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켈리 맥사멘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일본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3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등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의미도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함.

나. 한·중 관계

2016. 12. 13.

- **“롯데 조사하는 중, 선양 롯데월드 건축허가...’사드보복’수위조절(종합)(연합뉴스)**
 - 최근 중국에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한류규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양 당국이 장기간 미뤄졌던 롯데월드의 초고층 건물 건축허가를 전격적으로 내줌.
 - 롯데그룹에 대해 전방위 조사로 압박하던 중국 당국도 세무조사만 진행하며 강도를 낮추고 일부 한류 스타의 중국 내 활동이 이뤄지는 등 사드 보복과 관련해 중국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임.
 - 13일 선양 소식통들에 따르면 시 정부는 롯데 측이 현지에 짓기 위해 신청한 건축허가를 이달 초 내줬다고 함.

다. 한·일 관계

2016. 12. 13.

- **日정부,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 무산 공식발표(연합뉴스)**
 -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일본이 회의를 내년으로 연기하겠다고 13일 공식 발표함.
 -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각료회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중 정상회의를) 내년 적당한 때 일본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힘.

- 기시다 외무상은 회의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제반의 사정에 의해서”라고만 말했지만, 두 통신은 한국의 국정혼란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함.

2016. 12. 15.

■ **한·일 “재무장관회의 등 협력 확대…新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이 정책공조를 강화하면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음.
- 특히 미국 등지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함.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8월 새로 부임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면담하고 최근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 및 대응방향과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눔.

■ **“일본, 정보협정에도 北 SLBM 발사시험 정보 제공안해”(연합뉴스)**

- 일본이 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지 20여 일이 지났는데도 북한이 지난주 육상 시설에서 시험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관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정부의 한 소식통은 15일 “북한이 지난주 육상 시설에서 SLBM 발사시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일본 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은 것은 없다”고 밝힘.
- 앞서 일본 NHK는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달 들어 육상 시설에서 SLBM 발사 시험을 한 것이 미국에 포착됐다고 보도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12. 12.

■ **허핑턴 중국…트럼프 ‘대만 정책’ 의도 파악 총력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의 급소인 대만 문제를 취임도 하기 전에 공격적으로 꺼내 들자 중국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공개적으로는 트럼프 당선인을 비난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학자들을 대거 미국에 보내는 등 트럼프 진영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
- 12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관영 매체와 관변 학자들을 동원해 트럼프 진영에 미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를 뒤집을 경우 엄청난 보복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음.

2016. 12. 14.

■ **中, 美·대만 '정부·군사 접촉' 강력반대...대만에도 엄중경고(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흔드는 대만 관련 발언이 이어지자 중국이 미국과 대만의 정부 및 군사 접촉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이는 최근 트럼프 차기 정부의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트럼프 진영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의 강력한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은 또 하나의 중국 정책이 훼손될 경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평화도 깨질 수 있다며 대만을 겨냥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도 내놓음.

■ **트럼프 도발에 中, 美자동차회사 반독점 벌금 예고(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미국의 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14일 보도함.
- 일각에서는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는 상황임.
- 중국의 공정거래 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장한둥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 국 국장은 한 미국 기업이 판매상들에게 고정가격을 지시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 **백악관 "하나의 중국 정책 덕분에 이란 핵합의·北추가제재 가능"(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무역과 북핵 문제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해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재차 밝힘.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하나의 중국 정책 덕분에 이란 핵 합의와 북한의 추가고립 조치를 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보임.
- 어니스트 대변인은 특히 “중국의 효과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이란 핵무기 금지에 관한 합의를 완결짓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협력이 있었기에) 사이버 이슈를 둘러싼 긴장도를 낮출 수 있었고, 또 중국과 효과적으로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박도 강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함.

2016. 12. 15.

■ **주미 中대사 “주권은 협상카드 아냐…미중관계 기반 훼손 안돼”(연합뉴스)**

- 미국 주재 중국대사가 최근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냄.
-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기업 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보존에 대해서는 워싱턴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함.
- 추이 대사는 이날 자동차업계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 없이 “중국은 국내외 모든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한다”고 말함.

나. 미·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미·러 관계

2016. 12. 15.

■ **美언론 “푸틴, 러시아의 美대선 해킹에 직접 관여”(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해킹을 통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직접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옴.
- 미국 NBC뉴스는 14일(현지시간)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의 해킹 작전에 푸틴 대통령이 몸소 관여했다는 데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고위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함.
- 이 당국자들은 외교 소식통과 미국 동맹국 정보기관 등으로부터 얻은 첩보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미국 민주당이 해킹당한 정보 유출 방식 등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2016. 12. 16.

■ 백악관 “러시아 美해킹, 푸틴 모르게 진행되지 않았을 것”(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이 해킹을 통한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논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배후로 지목함.
- 벤 로즈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 내에서 이런 결과(민주당 인사들의 이메일 해킹)가 발생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함.
- 로즈 부보좌관은 러시아의 운영 방식과 푸틴 대통령의 정부 장악력을 고려할 때 ‘푸틴 배후설’이 더욱 명확해진다며 “심각한 사이버 침범을 얘기할 때 (배후자로) 정부의 최고위급 수준을 거론한다”고 설명함.

라. 중·일 관계

2016. 12. 14.

■ 中·日 고위관리 통화…“대북 제재 이행 협력 확인”(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의 외교 고위관리가 14일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통화는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핵 6자회담 중국측 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간에 이뤄짐.
- 앞서, 가나스기 국장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동하고 대북 독자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공조를 확인함.

마. 중·러 관계

2016. 12. 15.

■ 중·러 군사협력 박차…“러 첨단전투기 수호아-35 4대, 연내 中에”(연합뉴스)

- 러시아가 올해 안에 자국의 최첨단 전투기 수호이(Su)-35 4대를 중국에 인도할 것이라고 중국 매체가 러시아 언론을 인용해 15일 보도함.
- 중국 관찰자당은 러시아 타스 통신을 인용, 중국이 지난해 러시아와 체결한 Su-35 24대 구매계약에 따라 오는 25일 1차 인도분인 4대가 중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함.
-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Su-35 24대를 중국에 수출하는 약 20억 달러(약 2조 3천270억원) 규모의 계약을 중국과 체결한 바 있음.

바. 일·러 관계

2016. 12. 12.

■ 러·일 정상회담·진주만 방문…아베 연말외교 성공할까(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연말 정상 외교가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음.
- 당장 오는 15, 16일에는 야마구치 현과 도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임.
- 최대 관심사는 러·일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의 일본 귀속 문제임.

2016. 12. 15.

■ 아베-푸틴 오늘부터 정상회의…영토반환·경제협력 빅딜 나오나(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15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임.
- 15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두 나라 정상은 이날 아베 총리의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 현에서의 정상회담을 열 계획임.
- 러시아측은 이와 함께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전 무력 개입과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의 해제에 대해서도 일본 측을 압박하고 있으며, 일본은 주요 7개국(G7)의 하나로 제재에 참여하고 있음.

2016. 12. 16.

■ 공동경제활동' 쿠릴섬에 어느나라 법 적용?...일·러 '동상이몽'(연합뉴스)

-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 공동경제활동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 법률을 기반으로 할지에 대해 큰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
-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이 기대하고 있는 쿠릴 4개 섬의 반환 문제는 다뤄지지 않자 자칫하면 일본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될 수도 있음.
- 16일 도쿄신문, 니혼케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이 끝난 뒤 “4개 섬에서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특별한 제도로 공동경제활동을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2.11	英 정부 “북한에 체계적 반인도 범죄 존재”…김정은 책임성 시사(연합뉴스) ‘美·北 이산가족상봉 촉구’ 美결의안 상원도 통과(연합뉴스)
	12.12	“러 파견 北노동자 벌목·건설에 집중…저임금·고강도 노동”(연합뉴스)
	12.13	킹 美특사 “北인권문제, 일관성 있고 지속적 압박이 중요”(연합뉴스)
	12.14	유엔 前인권대표 “北 수용소범죄 국제법으로 밝힐 것”(연합뉴스)
	12.15	英정부, 北인권상황 비판하는 주북한 대사 동영상 게재(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12.10	北, 유엔 이산가족 보고서에 “적대행위” 반발(연합뉴스) 北, 세계인권의 날 한·미·일에 인권문제 ‘역공’(연합뉴스)
	12.11	北, 3년 연속 북한인권회의 개최한 유엔 안보리 비난(연합뉴스)
	12.13	대북매체 “김정은, 공안기관에 공개처형 금지 지시”(연합뉴스)
	12.15	대북매체 “김정은, 공안기관에 공개처형 금지 지시”(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12.15	외교부 “北, 국제사회 경고 무시말고 인권침해 중단해야”(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12.15	캐나다 외교당국자 방북…“임현수 목사 문제 논의”(연합뉴스)
대북지원	12.13	FAO, 北 수해지 농업피해 복구에 5억8천만원 지원(연합뉴스) 日적십자사, 여름 태풍 피해자 돕기 명목 1억원 북한 지원(연합뉴스)
	12.14	北 수해현장 둘러본 국제적십자사 총재 “도움 절실”(연합뉴스)
	12.15	“美 기독교단체, 北 수재민에 구호품 지원”(연합뉴스)
	12.16	러, 6년간 北에 331억원 지원…국제구호금의 10%(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12. 11.

■ 英 정부 “북한에 체계적 반인도 범죄 존재”…김정은 책임성 시사(연합뉴스)

- 영국 정부가 공식 보고서에서 “북한에 체계적인 반(反)인도범죄들이 존재한다”고 적시해 북한 인권 탄압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책임이 있다는 시각을 시사함.
- 이는 김 위원장을 반인도 범죄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유엔에 촉구하는 국제 인권단체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정부 입장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음.
- 영국 내무부는 9일(현지시간) 내놓은 ‘북한 국가정보(COI)’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 중 한 곳으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탄압과 반인도범죄들이 있다”고 평가함.

■ ‘美·北 이산가족상봉 촉구’ 美결의안 상원도 통과(연합뉴스)

-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산가족이 북한 내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의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미 연방의회 결의안(H.Con.Res.40)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함.
- 미 상원은 10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이 결의안을 상정, 가결함.
- 결의안은 북한에 이산가족상봉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과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담음.

2016. 12. 12.

■ “러 파견 北노동자 벌목 건설에 집중…저임금·고강도 노동”(연합뉴스)

-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대부분 벌목과 건설 부문에 집중됐으며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다는 조사결과가 나옴.
- 박찬홍 북한인권정보센터 객원연구원은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러시아 내 북한 파견 벌목공과 건설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 단행본 발간 기념 세미나 발표에서 이같이 밝힘.

- 이번 조사는 국내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 가운데 러시아 별목공과 건설 노동자로 파견 경험을 가진 북한 노동자 등 50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임.

2016. 12. 13.

■ 킹 특사 “北인권문제, 일관성 있고 지속적 압박이 중요”(연합뉴스)

-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사회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주장함.
- 킹 특사는 12일(현지시간) 정책연구기관 브루킹스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노력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동맹을 결성하고, 그(인권) 문제를 우려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함.
- 그는 북한 인권 문제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효약은 없다”면서도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압박을 계속 해 가야 한다”고 말함.

2016. 12. 14.

■ 유엔 前인권대표 “北 수용소범죄 국제법으로 밝힐 것”(연합뉴스)

-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 여부를 국제법으로 자세히 밝히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4일 보도함.
- 필레이 전 대표는 VOA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룬 모의재판 재판장을 맡았던 소식을 전하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토머스 뷔켄달 전 재판관과 마크 하몬 전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 재판관과 함께 60일 안에 (모의재판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함.

2016. 12. 15.

■ 英정부, 北인권상황 비판하는 주북한 대사 동영상 게재(연합뉴스)

- 영국 정부가 현직 북한 주재 자국 대사의 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함.

- 영국 외무부는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의 날'인 지난 10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계정 등에 앨리스테어 모건 주(駐)북한 영국 대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올림.
- 평양에 현재 주재하는 외국 대사가 공개된 동영상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를 직접 제기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VOA는 평가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12. 10.

■ 北, 유엔 이산가족 보고서에 “적대행위” 반발(연합뉴스)

- 북한은 10일 한국인 납북 문제를 포함한 남북 간 이산가족 문제를 조명한 유엔 보고서를 자신들에 대한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힘.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해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반 공화국 보고서 발표를 강행한 것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 행위로 낙인(규정)한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것은 남측이 북한 주민을 지속적으로 ‘유인 납치’해 남북관계를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OHCHR은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당장 돌려보낼 것부터 남한 당국에 요구하라고 촉구함.

■ 北, 세계인권의 날 한·미·일에 인권문제 ‘역공’(연합뉴스)

- 국제사회로부터 최악의 인권 유린국으로 낙인 찍힌 북한이 ‘세계인권의 날’을 맞은 10일 한국과 미국, 일본의 인권이 후진적이라며 되레 역공을 펼침.
-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게재한 개인 필명의 글에서 “나라와 민족마다 역사와 풍습, 생활방식이 서로 다른 것만큼 인권보장제도 역시 그 나라 인민의 요구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며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와 같이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함.
- 이어 미국과 한국 내 인권침해 실태를 언급하며 “세계인권의 날을 맞으며 국제사회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패당을 비롯한 그 추종세력들이 저들의 반인권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제 집안일이나 바로잡을 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고 역지를 부림.

2016. 12. 11.

■ **北, 3년 연속 북한인권회의 개최한 유엔 안보리 비난(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이 최근 3년 연속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는 유엔 무대에서 또 다시 벌어진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우리에게 대한 악랄한 적대 행위로 강력히 단죄규탄한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미국이 유엔현장과 많은 나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거수기들을 굽어 모아 우리의 인권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시키는 비법적(불법적)인 놀음을 벌린 것은 유엔과 그 성원국(회원국)들에 대한 노골적인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말함.

2016. 12. 13.

■ **대북매체 “김정은, 공안기관에 공개처형 금지 지시”(연합뉴스)**

- 북한 인권탄압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공안기관들에 ‘공개처형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가 13일 보도함.
- 평안북도 소식통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김정은이 인민보안부를 비롯한 전국의 사법, 검찰기관들에 군중들을 모아놓고 사형하는 ‘공개총살’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이번 지시가 사형수들에 대한 처형을 하지 말거나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공개총살 방식에서 비공개 처형방식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라고 설명함.

2016. 12. 15.

■ **“北,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내년 1월 5일 발효”(연합뉴스)**

- 북한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엔 협약이 내년 1월 5일 발효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함.
- VOA는 “유엔은 북한이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비준한 확인서를 지난 9일 발급했다”면서 “이 협약은 북한에서 1월 5일부터 공식 발효된다”고 밝힘.
-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 보장을 위해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해 2008년부터 발효된 유엔의 인권 협약임.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12. 15.

■ 외교부 “北, 국제사회 경고 무시 말고 인권침해 중단해야”(연합뉴스)

- 외교부는 15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인도에 반하는 죄를 포함한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지난 13일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토의(12월 9일)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대한 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강조함.
- 조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토의가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서 3년 연속 열린 것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안보리에서의 북한인권 논의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평화·안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12. 15.

■ 캐나다 외교당국자 방북…“임현수 목사 문제 논의”(연합뉴스)

- 캐나다 외교부 당국자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15일 밝힘.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사라 테일러 북아시아 및 오세안(오세아니아)주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캐나다 외무성(외교부) 대표단이 13일부터 15일까지 조선(북한)을 방문하였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캐나다 측 대표단이 최설희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국장과 만나 임현수 목사 문제, 양자 관계 발전 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으며 한성렬 외무성 부상을 예방했다고 밝힘.

5. 대북지원

2016. 12. 13.

■ FAO, 北 수해지 농업피해 복구에 5억8천만원 지원(연합뉴스)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함경북도 수해지에서 발생한 농업피해 복구를

위해 미화 50만달러(약 5억8천만원)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함.

- 크리스티나 코슬렛 식량농업기구(FAO) 조기경보국 동아시아 담당관은 “11월부터 북한 수해지 내 식량 안보 개선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을 시작했다”며 “이 사업은 내년 9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함.
- FAO는 채소 재배를 시작할 수 있는 온실 자재를 비롯해 함경북도 연사·무산·경원군과 회령시 내 16개 협동농장에 홍수로 파괴된 가축 우리와 탈곡장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도 지원했다고 밝히고, “농업 종사자들에게 '기후스마트 농업' 기술도 전수할 계획”이라고 전함.

■ **日적십자사, 여름 태풍 피해자 돕기 명목 1억원 북한 지원(연합뉴스)**

- 일본 적십자사가 지난여름 북한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 피해를 돕기 위해 1천만 엔(약 1억1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보도함.
- 이 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적십자사는 지난가을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이슬람권 적십자사)를 통해 지원금을 전달했으며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등은 이를 구호활동에 사용함.
- 일본 정부가 이번 지원으로 경직된 일본-북한 관계가 개선되길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함.

2016. 12. 14.

■ **北 수해현장 둘러본 국제적십자사 총재 “도움 절실”(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함경북도 수해를 '기적적으로 복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장을 둘러본 국제적십자사 총재는 아직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고노에 타다테루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총재는 13일 성명을 통해 “많은 주택과 아파트가 새로 건설돼 수재민이 추위를 피해 새롭게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수재민들은 모든 것을 잃었으며 앞으로 수 개월 간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 기본적 구호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함.
- 고노에 총재는 지난 3일부터 열흘간 수해지역을 방문, 무산군과 회령시 등에 체류하며 수해복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지 주민과 조선적십자회 및 북한 정부 관계자 등을 면담함.

2016. 12. 15.

■ **“美 기독교단체, 北 수재민에 구호품 지원”(연합뉴스)**

- 미국의 기독교 단체인 '메노나이트'가 북한 함경북도 수재민을 위해 구호품을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함.
- 이 단체는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9월 미국의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을 통해 북한 수재민들에게 구호품 세트 500개와 학용품 세트 110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함.
- 이 구호품은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과 연사군 내 수재민들에게 전달함.

2016. 12. 16.

■ **러, 6년간 北에 331억원 지원...국제구호금의 10%”(연합뉴스)**

- 러시아가 지난 6년간 지출한 국제구호 금액 가운데 약 10%가 대북지원이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함.
- VOA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집계한 러시아 정부통계를 인용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러시아가 외국에 제공한 구호 관련 지원금액은 약 2억7천만달러(약 3천200억원)로, 이 가운데 대북지원이 약 2천800만달러(약 331억원)”라고 밝힘.
- 이 기간 러시아 정부는 북한을 포함해 총 16개 국가를 지원했다고 VOA는 설명함.